

## || GATT 協定後 觀望 姿勢를 取하는 肥料 業界 ||

〈Fertilizer International No.330 February 1994〉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은 지난 12월에 終決되었다.

關稅와 貿易에 關한 一般協定(GATT)의 우루과이라운드가 처음 시작된지 7年만 인 지난 12月 15日 最終 合意에 이르렀다. 우루과이라운드는 모든 나라에 확실한 富를 가져다 줄 온갖 商品의 自由交易에서 조각그림맞추기의 마지막 한조각으로 생각되어 왔다. 協商이 挫折된다면 그 結果는 너무나 비참하여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도 모두 믿게 된다. 貿易戰爭이 일어나서 世界貿易은 被害를 입 고 大量 失業이 뒤따를 것이다. 最終 協商을 하는 동안에 日本 및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取한 완강한 경향은 餘他 國家에서 不利한 言論매체의 論評을 誘發시켰 지만 그들의 저항은 끝내 극복되었다.

### ○ 不變의 자랑거리

우루과이라운드가 왜 그렇게 다루기 힘들었던것으로 證明되었느냐 하는 한가지 理由는 農業이 協商의 가장 重要한 焦點이었기 때문이다. 以前의 케네디라운드와 도코라운드는 消費者와 工產品에 集中되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모든 指導的인 協商者들의 신경을 건드려 會談을 곧 美國과

유럽공동체 사이에 참호戰의 樣相으로 退步하였다. 日本 또한 쌀 輸入禁止를 緩和하라는 壓力때문에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이러한 渦中에서 다른 그룹의 나라들은 제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이 클레임그룹은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알젠틴 및 브라질을 포함하여 南半球諸國의 集團을 형성하였는데 이들 모든 나라들은 北 美 및 유럽 무역블럭사이의 어떤 約定은 世界農業市場에서 그들이 本來부터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美國과 EC는 穀物輸出補助金 撤廢의 問題에 關해서 分明히 冷淡한 反應을 받았다. 이 두地域에서 農業은 戰略的인 役割을 하였고 穀物輸出은 온갖 公的인 장려책이 주어졌다. 營農은 美國 및 유럽공동체의 社會構造에서 重要한 一部分으로 認識되었다. 日本人들과 韓國人들은 輸入쌀에 그들이 國內市場을 開放하는 問題에 비슷한 不安感을 나타냈다. 비록 國內 消費者들은 國產쌀에 世界市場價格의 6 배의 값을 치를지라도 輸入쌀에 不安해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로비활동자들은 制限없는 輸入쌀에 國內市場이 開放된다면 그들國民의 文化的 差異性이 침해될것으로 憂慮하고 있으며 小規模 營農의 國內農夫들은 無制限의 市場勢力에 束手無策이 될것이다.

各地域의 肥料生産者들은 GATT會談進展에 關心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그들의 運은 地域 및 國內 農業部門의 存續에 달려 있으며 TFI와 같은 로비그룹은 그들의 나라의 立法者들과 貿易代表者들이 農業의 必要性을 認識하고 있음을 確實하게 밝혔다.

## ○ 보다 나은 協定 期待

最終 合意된 GATT協定은 많은 關係當事者들이 期待했던것보다 더 나은것이였다. 美國과 EC는 雙務協定을 締結함으로써 그들의 差異點을 解決하였는데 이 雙務協定은 EC 農產物輸出을 爲하여 實質的으로 양보한 것이다. 이 協定은 EC로 하여금

Blair House 協約에서 처음에 規定된 것보다 더 많이 앞으로 6년동안에 穀物 8백 10만톤, 쇠고기 360,000톤, 닭고기 250,000톤 및 치즈 100,000톤 이상을 輸出할 수 있도록 許諾하였다. 이러한 양보는 우루과이라운드期間의 처음 몇년동안에 生産減少의 影響에 對한 프랑스人的 憂慮를 緩和하는데 크게 貢獻하였고 또한 EC로 하여금 앞으로 몇년동안에 中間在庫를 處理할 수 있도록 크게 여유를 주게 될 것이다. 그대신 EC는 靑果物 및 채소에 對한 關稅를 낮춤으로써 市場進出에 양보하였고 돼지고기輸入 特別쿼타에 양보하였다. 이러한 事態進展은 유럽 肥料工業代辯人에 依하여 歡迎을 받았는데 그는 앞으로 EC농업무역政策의 明示는 特히 프랑스 農業部門에 影響을 미쳤고 肥料販賣에 沮害要因이었던 不安을 解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論評하였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루과이라운드 정리의 짐은 아직도 EC 및 産業化된 東南亞 細亞 農民들에게 부담된다. 北美農民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有利하게 될 것으로 豫想된다. 아세아에서 쌀 市場開放은 長期間에 걸쳐 가장 意義있는 事態進展이 될 수도 있다. 西歐 및 工業化된 亞細亞諸國(日本, 韓國 및 臺灣)의 一世代는 食糧自給과 保護받는 國內農業을 보다 넓은 經濟發展을 爲한 跳躍臺로 여겼다. 유럽 西北部에서의 農民들은 補助金受領을 生産效率性を 높이는 方패로 利用하였다. 日本, 臺灣, 및 韓國에서는 傳統的인 쌀栽培方法이 數世紀동안 實質적으로 變함없이 維持되어 왔는데 이는 現代의 影響으로부터 농촌生活方式을 保護하는 것을 重視했기 때문이다. 營農은 民族文化의 不可缺한 部分으로 看做되었지만 이러한 政策들은 制限的인 成功이 있을뿐이었다. 왜냐하면 이지역에서의 농업은 漸次로 나이많은 사람들의 領域이 된 反面에 野望있는 젊은이들은 농촌에서 都市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日本은 制限的인 程度로 쌀 장벽을 解除하여 1995년부터 國內需要의 4%를 수입 쌀로 充當하고 6年後에는 8%까지 올리는 反面에 칼리포이나, 오스트랄리아, 타일

랜드 및 베트남을 포함한 餘他國家와 地域들은 得이 될 것으로 豫想된다.

## ○ 慰安

GATT協定은 農業補助金戰爭의 激化를 緩和시키고 앞으로 6년동안 世界市場의 穀物價格은 上昇할 것으로 豫想된다. 그 結果 우리는 分명한 勝者로 認識될지도 모르며 美國과 EC는 그들의 穀物販賣를 增加시킬것으로 豫想된다. 오스트랄리아와 알젠친도 得을 볼것으로 보이는데 反面 저렴한 世界市場價格의 結果로 최근에 순전히 輸入國이 된 에집트와 같은 다른 나라들은 다시 순수 輸出國이 될수 있다.

아프리카諸國, 카리비안 여러나라들 및 太平洋연안 國家들(ACP)는 GATT協定以後의 앞으로의 事態進展에 더 憂慮를 하고 있는데 特히 이들나라들은 그들의 靑果物 및 其他 產物을 EC가 輸入하는데 매달려 왔기 때문에 더 不安하다. 이地域에 있는 前프랑스 및 英國植民地들은 保障된 市場進出의특전을 누려왔는데 特히 바나나의 경우는 더욱 그랬다. 長期的인 觀點에서 世界銀行은 ACP의 農산물輸出 展望에 關하여 우려를 表明하고 貿易自由化가 靑果物이나 코코아같은 ACP 產物交易에서 自動的인 增加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고, 한 무역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對EC輸出 轉換을 誘導하도록 提案하였다. 그러나 기름을 짜는 種子製品의 경우 유럽은 CAP가 取한 諸般措置와 寬大한 補助金制度에도 不拘하고 國內需要를 充足시킬만큼 이 製品을 充分히 生産하지 못하였다. ACP여러나라를 위한 解決策은 기름을 짜기 위한 씨앗을 自體的으로 더 生産하는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의 잠재적인 利益에 對한 意見을 달리하는 목소리가 英國연방그룹 및 SAFE同盟國에서 나왔는데 이 동맹국들은 美國과 EC는 農產物 過多 生産 및 後進國에 剩餘農產物을 投賣할 수 있는 免許를 얻게 될 것이라고 宣言하였다.

## ○ 最善의 計劃

이러한 非難들은 現在로서는 立證하기가 어렵고 窮極적으로는 우루과이라운드 協定이 합측하는바는 시간이 經過해야만 밝혀질 것이다. Ed Wheeler and Associates의 Ed Wheeler는 美國肥料生産에 미치는 GATT의 영향은 더디게 나타날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유럽에 輸出한 美國肥料에 影響을 주는 關稅는 現在의 狀態에서 별로 變換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솔직히”, 그는 FI에게 말했다. “나는 ‘새로운’ GATT가 創設된다해도 그자체로서 美國肥料生産者들에게 利得을 가져다준다거나 不利益을 준다고는 믿지 않는다.”

Ed Wheeler는 今世紀末頃に 美國肥料産業의 窮極적인 顧客인 農民은 이 條約으로 부터 혜택을 받게 될것이라고 믿고 있다.

美國肥料産業을 위해서는 좋은 소식인가? 그럴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 美國은 점점 非美國肥料의 使用者가 되고 있다. 加里, 尿素 및 암모니아 輸入量은 계속 增加하고 있고 美國農夫들이 生産을 最大化하도록 허락된다 해도 美國은 追加로 要求되는 窒素質의 需要를 國內工場으로부터 充足시킬수도 없다. 燐酸肥料만이 美國에서 自給自足되는 品目이다. 그리고 Ed Wheeler가 指摘한것처럼 20年內에 燐鑛石 輸入이 增加될 것임을 쉽게 내다볼 수 있다.

世界的인 觀點에서, International Fertilizer Industry Association(IFA)의 事務總長 Luc Maene는 “GATT 協定으로 世界經濟에 주어진 어떤 힘은 農産물의 需要에 긍극적인 影響을 미칠것이며 그 結果로 肥料에도 큰 影響이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觀察하였다. 그는 충격이 先進國의 經濟에 가장 크게 나타날것으로 믿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食品의 質과 적합성의 향상 규모가 開發途上國들보다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GATT協定이 1995년부터 發效될지라도 先進國의 農業이 補助金を 支給하는 형태

로 남아있는 事實은 開發途上地域에게는 손상이 되는 것이다. Luc Maene는 世界的으로 肥料消費에 미치는 GATT協定の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結論을 내렸다.

1995년과 그뒤 몇년동안에 이 豫測이 正確한지 與否가 밝혀질것이다.

## GATT 協定後 生存과 妥協하는 日本“全農”

〈Fertilizer International No.330 February 1994〉

全世界의 肥料市場은 最近의 GATT協定の 意義를 査定하고 있다. 이것은 政府가 傳統的으로 輸入을 禁止시킴으로써 國內 쌀栽培農民을 保護했던 日本에서 特히 強力한 反響을 일으키고 있다.

1993年 12月 13日에 나온 日本이 심하게 保護했던 쌀市場을 制限的으로 開放한다는 日本總理모리히로 호소카와의 發表는 GATT世界貿易協定の 마지막 장애물을 除去하였다. 이 發表는 또한 日本農業의 分水嶺을 나타내는 것이다. 西方政府들이 日本쌀市場의 象徴的 開放에 對한 承認을 表明하였지만 日本의 農村과 農產物 供給者들은 그들을 어디까지 끌고갈지 어찌할바를 모르고 있는데 特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日本農業을 사양산업으로 보고 있는 때에 그러한 決定이 나왔기 때문에 더욱 不安하다.

쌀輸入을 繼續 反對하는 것은 새로운 世界貿易條約의 最終合意를 가로막고 日本으로 하여금 國際的인 非難을 받게 된다는 것을 認識하고 日本의 執權 聯立政府의 閣僚들은 양보하기로 同意한것이다. 聯立政府 閣僚들이 分裂된다면 출범 4個月째의 政府는 붕괴되었을 것이다. 더싼 쌀을 輸入하는 것이 實際로 日本으로